

# “영업할수록 손해”... 벼랑끝 내몰린 자영업자

전방위 고물가 압박에 직격탄  
가공식품·공공요금 등 출인상  
인건비 없는 무인매장도 휘청  
식당들 “가스비 폭탄 큰 부담”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무인매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전기세도 오르고,  
대기업들은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줄줄이  
올리니 당해낼 재간이 없네요.”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간신히 코로나19의 영향  
에서 벗어난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직격탄  
을 맞았다며 호소하고 있다.

광주 서구 내방동에서 아이스크림 할인  
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씨는 최근 고민  
끝에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장씨는 “유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순간부터 제조사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  
다”며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려면  
24시간 냉동고를 돌려야 하는데 이미 전



광주 서구 내방동의 한 아이스크림 할인점 내부.

기요금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음 달에  
또 오른다고 하니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  
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박리다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아

이스크림을 판매하는 할인점의 특성상 인  
상률만큼 가격을 올리면 일반 슈퍼마켓이  
나 편의점 등과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점  
이다.

장씨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는 1+1, 2+1 묶음 할인을 하는데 싸게 많  
이 팔아서 장사를 했던 할인점 입장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가격 경쟁이 안된다”  
며 “이대로라면 할인점이라는 간판도 떼  
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전  
년 동기 대비 31.7% 올랐으며 가공식품  
물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0.3% 오르며  
13년9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  
다.

가공식품 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등 고  
정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매출 대비 수익  
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일자로 롯데제과는 스크류  
바와 죠스바 가격을 기존 500원에서 600  
원으로 20% 인상했으며 월드콘, 찰떡아  
이스, 설레임은 각각 1000원에서 1200원  
으로 조정했다. 나무루 파인트 제품 10종  
의 경우 1만2900원에서 1만4900원으로  
15% 올랐다.

빙그레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아이스  
크림 가격을 평균 20%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 소매점 기준 메로나, 비비빅을 비롯  
한 바 아이스크림 7종과 슈퍼콘 등의 아이  
스크림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설렁탕·곰탕 등 오래 끓  
여야 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가스비 폭탄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동구 충장로1가에서 설렁탕집을 운영  
하고 있는 유모씨는 “평소에 40~50만원  
가량 납부하던 가스요금이 지난달 80만  
원 넘게 나왔다”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까 손님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전  
기, 가스요금까지 이렇게 오르면 정말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번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업종을 잘 살펴서 지원책을 마  
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광주전남중기청, 중기 전문 연구인력 지원

이공계 학·석·박사급 연구인력  
소·부·장, 첨단산업 기업 우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  
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  
원’ 등 두 가지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  
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  
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  
는 방식이며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노하우 전수, 기  
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

한다.

특히 올해는 소·부·장 기업의 지원 규모  
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  
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  
기업이다.

다만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  
약 체결일(2023년 5월 예정)까지 연구인  
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  
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  
사 내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  
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  
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곽지혜 기자

## ‘광주 국제농기자재박람회’ 16일 개막

20일까지 DJ센터

최신 농기자재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23 광주 국제농기자재 박람  
회’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김  
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광주 국제농기자재박람회는 실내에  
서 개최되는 농기자재 전문 박람회로 트  
랙터, 이앙기, 콤팩트 등의 대형 농축산  
기계부터 스프링클러, 무인방제기, 전기  
동력차, 유기농비료, 우수종자, 특수 장  
비 등 다양한 농기자재가 전시될 예정이  
다.

박람회는 200여개 업체 300부스의 규  
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근 농업 흐름  
에 맞춰 최신 농기계 및 농자재 등 다양  
하고 새로운 업체들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농업·친환경농업홍  
보관 △우수중소기업제품관 △우수농



특산품관 등 다채  
롭고 풍성한 제품  
을 만날 수 있으며  
참가는 광주 국제  
농기자재박람회  
홈 페이지  
(www.agritex  
.kr)에서 사전등  
록을 신청하면 된  
다.

주최사인 소상공인희망 협동조합 관  
계자는 “다양한 농기자재를 만날 수 있  
는 광주 국제농기자재박람회를 통해 특  
히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신  
규 사업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고 좋은 성능의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 현대차·기아,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늘린다

현대엔지니어링-우리관리 MOU  
건물 자산 관리, 네트워크 활용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국내 전기차 충전  
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대규모  
주거시설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  
라 구축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계동사옥에서 현대엔지  
니어링, 우리관리와 함께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3자 MOU를 체  
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협  
력 파트너십을 확장해 아파트 충전 인프  
라의 확대와 충전 생태계 활성화를 모색  
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E-pit(이피트)에 적  
용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E-CSP  
)을 이번 3자 협력으로 구축되는 아파트  
충전기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E-pit 회원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아파트에서도 충전이 가능  
해진다.

2022년 하반기 전기차 충전사업을 시

##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협력 MOU 체결

일시 : 2023. 02. 03. (금) 12:30



(왼쪽부터)최재홍 현대엔지니어링 자산개발영업실장, 정규원 현대자동차 EV인프라전  
략실장, 김영복 우리관리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현대엔지니어링 계동사옥에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하고 있다. 기아 제공

작한 현대엔지니어링은 건설사의 축적된  
시공 및 건물 자산관리 운영 노하우를 아  
파트 충전소 운영에 접목해 고품질의 안  
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업계 1위 사업자인 우리  
관리는 보유 중인 아파트 관리 네트워크  
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수요를 파악하고  
전력 수용 용량 등 충전 인프라 환경을 고

려한 신뢰성 높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1년 전기  
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E-pit를 론칭, 현  
재 21개소 120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20개소를 구축하고, 2023년 이  
내에 총 58개소 약 300기를 운영할 예정  
이다. 곽지혜 기자

## 광주 노후산업단지 ‘혁신산업단지’로 재도약

산단공, 민간 대행사업자 공모  
입주기업 참여로 산단 첨단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  
역 노후산업단지의 산단 혁신과 첨단화를  
위해 산업구조고도화시설, 첨단업무시설  
및 주거·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지하  
는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를 공  
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  
지, 광주분촌일반산업단지, 광주소촌일  
반산업단지를 포함한 31개 산단을 대상  
으로 하며, 산업시설 위주의 토지이용 규  
제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행정 인허가의 제척리 지원으

로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도울  
예정이다.

참여대상분야는 △첨단공장, 지식산업  
센터, 물류시설 등 산업고도화 △도시형  
생활주택, 문화컨벤션 등 주거편의문화시  
설 △연구개발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기  
업지원시설이다.

산단공은 산단 혁신을 위해 지난 12년  
간 16개 산업단지에 52개의 대행사업을  
선정, 6조6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구조고도화사업  
의 공공 주도 추진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  
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의 변화에 박  
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접수는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지자체 의견수렴,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4월 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단공에서는 입주기업 등 사업의향자  
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촉진을 위  
해 1:1 전문가 매칭,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 성공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  
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상현 산단공광주지역본부장은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서 노후 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첨단산업시설, 업무  
기능 및 주거·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유  
치함으로써 전국 주요 산단에 현대화를  
촉진하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